

지역 매 아리

논 타작물 재배지원 적극

김제시, 규제 홍보물품 제작 배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혁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직원에게 배포했다.

김제시는 실생활에 필요한 치약칫솔세트, 물티슈 등에 규제 상담 창구 사이트를 표기하여 제작·배포함으로써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전환과 체감도를 높이고 노력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맞게 보건·환경·안전 분야에서의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이 있을 경우 김제시 규제신고센터(☎540-3720,3877) 또는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쌀값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일석이조

김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김제시 목표면적 1,257ha 대비 164.8%인 2,072ha(논농 1,978ha, 조사료 67.4ha)를 초과 달성하여 쌀값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은 2017년 쌀 변동직불

금 수령농지에 2018년 벼 이외 작물 재배 시 단위 면적당 조사료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 추진으로 2,072ha의 벼 재배면적이 조정되어 향후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는 고정형쌀소득직불금 평균100만원/ha(진흥지역 1.07만6,416원, 진흥밖 80만7,312원)·사업참여 보조금 280만원(두류기준) 및 작물(콩)생산 조수의 135만원/ha(콩값 4,500 ~ 4,700원/kg)등 농

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김제시 콩(논콩) 재배면적(10a당 300kg)은 전국최대를 자랑하며, 발식량작물(콩) 주산지(전라북도 고시 2018-99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이상저온·폭염·태풍 등 좋지 않은 기상여건 속에서도 기존 벼 재배에서 벗어나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에 동참해준 농가에 감사드리며 내년도도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쌀 값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 13회 임산부의 날 행사 큰 호응

완주군이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완주군가족문화교육원에서 80여명의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날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임산부의 날'인 10월 10일은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달 10월과 임신주기의 10개월을 상징해 기념하는 날로써, 이번 행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와 남편(아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의 특강과 예비 아빠·엄마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용품(애착인형) 만들기 등을 통해 아기와 교감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 아빠들이 임산부 체험복을 입어봄으로써 만산인 아내의 노고를 느껴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한 한 예비아빠는 잠깐의 체험이지만 "앞으로 아내와 아기에 더 잘하는 착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합건강증진 홍보관 운영으로 모유수유 중요성을 알리고자 모유수유서약 캠페인과 임산부·영유아 영양정보, 금연클리닉, 알레르기질환관련 지원사업 및 건강 상담과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지역기업체인 ㈜BGF와 완주로컬푸드는 임산부들에게 영양간식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가정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내와 함께 물티슈, 전기안전커버, 우유 등의 후원물품을 참석자 전원에게 후원해 주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15일 완주군은 EM(유용미생물균) 흙공 던지기 행사에 강실리기완주군네트와 화산초등학교 학생 등 참여했다.

"EM흙공 던지기로 환경 지켜요"

완주군, 환경교육 통한 수질보전 필요성 인식

완주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산천에 EM(유용미생물균) 흙공 던지기 행사를 개최,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5일 완주군은 강실리기완주군네트와 화산초등학교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해 화산천에서 EM(유용미생물균) 흙공 던지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흙공던지기 행사는 지난 와일드푸드축제기간 체험활동으로 만들어진 EM흙공 800개를 화산천에 투척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한 하천 수질의 중요성과 수질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EM흙공을 화산천에 투척해 천

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어 하류의 경천저수지와 고산천 수질을 개선, 만경강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전달했다.

이병철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워 주고 맑고 깨끗한 우리고장 하천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고종시 마실길 걷기로 추억여행 떠나기

27일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완주군은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마실길 홍보를 위해 '제5회 고종시 마실길 사 진추억 걷기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고종시 마실길 1코스 중 10.5km 구간 걷기체험을 통한 새로운 길 문화 정착과 탐방객 유치

통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소양 위봉사 주차장에 모여 위봉폭포, 시향정 전망대를 지나 동상 학동마을까지 이선녀 시조 시인과 숲해설사 10여명이 함께 숲해설 및 길 안내로 걷기 체험이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는 걷기체험, 웃음만들

기 이벤트, 흔적 남기기가 있으며 부대행사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뜻을 함께하는 가족, 친구들과 추억이 되는 힐링의 걷기행사의 참여자에게는 간식과 중식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완주군청 환경위생과(063-290-2662)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15일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학수재 위령각에서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금산면 학수재 호국영령 추모제 개최

김제시, 김덕명 장군 등 애국지사의 우국충정 기려

학수재 영락회(회장 오창오)는 15일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학수재 위령각에서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회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김제출신 동학농민혁명 대접주인 김덕명 장군과 원평정터에서 가미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르신 9인의 애국지사와 광복군 제1지대장으로 활동한 이종희 장군 등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의 우국충정을 추모기 위해 실시된 이날 추모

행사는 1부 상경례 및 2부 추모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수재 영락회 회원들은 현충시 설인 위령각과 이종희장군 추모비를 보호·관리하면서 매년 10월 15일 이곳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창오 회장은 "오늘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제를 통하여, 장렬하게 산화해 가신 영령들의 넋을 다시 한번 기리고,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킨 거룩한 희생정신이 후손민대에 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오상민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5일 제2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에서 지방자치법 41조 등에 따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해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회기 2일차부터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소관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안전

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관 4건의 안건 중 집행부의 법적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되었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상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혁신도시를 김제시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온주현 의장은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있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